

7/30/23

설교 제목: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1 장 15-23 절

(엡 1:15)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엡 1:16)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엡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엡 1: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엡 1: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엡 1: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엡 1: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절관주** 히 2:8, 계 19:16

(엡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본장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인사말 (1-2 절)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3-14 절),
그리고 감사와 기도 (15-23 절)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본문은 셋째 부분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 부분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찬송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 삶을 살고 있는 연유로 종종 혼돈에 빠지곤 합니다.

구원의 기쁨에 환희하다가도 문득 보이지 않고 손에 닿지 않는 천국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셨으니, 하나님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일은 이제 다 하셨고 나머지는 내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삶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이같은 생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든 힘을 짜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구할 뿐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엡 1:15)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엡 1:16)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에베소 성도들의 '주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전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보인 '주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그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참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고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으며 그 결과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참된 신자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주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같은 삶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죄 사함을 얻었으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열매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개척한 모든 교회가 소중했지만 그에게 에베소 교회는 특별했습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며 3년간이나 머물며 세운 교회이기에 더욱 애착이 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예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특별히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던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해서 경고하며 자신이 그동안 눈물로 가르치고 겹손으로 섬긴 것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열매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슴은 감격으로 인해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폭포수 같이 흐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엡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삼위의 하나님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 땅에서 확신과 기쁨에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엡 1: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엡 1: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견디고 언젠가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벧전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벧전 1: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절대로 잃지 않을 영광스럽고 풍성한 영원한 기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급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받지만 기업은 우리의 신분에 의해 받게 됩니다.

기업은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상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양된 자녀로서 본래 자녀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은 영광스럽고 풍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없는 자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들입니다.

(고후 6: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후 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이 지극히 크심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사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믿는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지극히 큼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과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를 설명합니다.

(엡 1: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엡 1: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엡 1: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엡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여 죽음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만물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므로 한 몸으로서 움직일 때 충만하여집니다.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당장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같은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보면 안타깝게도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삶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 2: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 2: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계 2: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계 2: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 2: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풍성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잊으면 남는 것은 책임감과 의무감, 죄책감 뿐입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 13: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 13: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 13: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 3: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 밭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요?

지금까지 그 보화를 보고 기뻐하며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지요?

너무나도 소중해서 날마다 몰래 꺼내보며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갈고 닦으며 사는지요?

혹시 그 보화를 땅에 묻어두고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영안이 열려 좀 더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산 보화인 주님의 가치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주님과의 첫 사랑을 잊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기업을 약속 받았는지,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